석주명의 방언 연구

- ≪제주도방언≫(1947)을 중심으로

정승철(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 石宙明과 제주도

'나비 박사'로 알려진 석주명(1908-1950)은 평양 출신의 과학자다. 그는 한국의 '나비 분류 체계'를 확립한 자연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관한 종합적 조사·연구(이른바 '제주학') 업적으로서 총 6권의 '제주도총서'를 남긴 지역학 연구자이기도 하다.[1] 이로써 보면 석주명은 '나비'는 물론, '제주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석주명을 대상으로, 이 논문은 그가 구상한 제주학의 일단 특히 제주방언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내용과 특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석주명의 제주학 업적에 대해 살피되 '제주방언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그 선행 작업으로 여기서는 우선, 제주도와의 연관성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의 삶을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2]

석주명은 1908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의 숭실고보를 다니다 개성의 송도고보로 전학, 졸업하였다(1926년).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농학과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박물과로 하였다(1929년). 졸업하자마자 귀국, 함경남도 함흥의 영생고보 박물교사로 2년간 근무했으며 1931년에 모교인 송도고보(후에는 송도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1942년 3월까지 모교의 박물교사로 재직하며 나비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1936년에 처음으로 제주도 채집 여행(7.21-8.22)을 하고 <제주도산 접류 채집기>(1937)를 써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蝶類" 즉 '나비'를 출발점으로 이때부터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그의 본격적인 제주도 연구는 송도중학교 사직 후 1942년 3월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미생물학교실 소속 '생약연구소'(경기도 개성 소재)에 촉탁(=기간제 위촉직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이루어졌다. 그는 1943년 4월에 해당 연구소의 '제주도시험장'(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지금은 제주대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로 편입)으로 자진해서 전근 신청을 하고 1945년 5월까지 2년 남짓을 제주도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제주에 머무르면서 '방언'을 비롯한 제주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이후 제주도를 떠나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경기도 수원 소재)의 병리곤충학 부장으로 부임해 있는 가운데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후 1946년 9월에 국립과학박물관(1948년부터 국립과학관)의 동물학 연구부장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전문적 연구를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나비 이름의 명명·통일 작업 그리고 각종 신문·잡지에의 투고 등을 통해 과학을 대중화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6·25전쟁의 와중에도 자신의 연구 및 대외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던 석주명은 과학관이 전소되자 이의 재건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1950년 10월, 서울 수복의 혼란 상황 속에서 행인이 쏜 총에 맞아 급작스레 서거하였다.

---

* 이 논문은 ≪애산학보≫ 45집(2018년 10월 31일 발행 예정)에 게재될 예정이다.

1) 석주명이 1950년 6월에 쓴 '제주도자료집'(사후 간행)의 <서문>에 "濟州島叢書" 6권의 출간 계획이 밝혀져 있다.

2) 이 서술은 윤용택 외(2012)에 실려 있는 <석주명 연보>(439-464면)에 기초했다. 석주명의 전 생애에 대한 상세는 이병철(1989) 참조.

석주명은 과학관에 근무하던 이 4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제주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일례로 1949년에 <신문기사로 본 해방 후 1년간의 제주도>, <신문기사로 본 해방 후 둘째 해의 제주도>, <신문기사로 본 해방 후 셋째 해의 제주도>를 ≪학풍≫에 연재하고 이어서 1950년에 <신문기사로 본 해방 후 넷째 해의 제주도>를 ≪제주신보≫에 게재한 것은 그가 제주도 사회를 늘 관찰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이에다가 '제주도총서' 집필 및 간행 작업까지 포함하면 그의 생애 후기는 상당 부분, 제주도가 차지했었다 할 만하다.

2. '제주도총서' 속의 ≪제주도방언≫

석주명은 자신을 "반(半) 제주인"이라 부를 정도로, 제주도에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학자였다. 그리하여 그는 평생토록 "17권의 저서, 120여 편의 학술논문, 180여 편의 잡문"(윤용택 2012: 293-4)을 쓰는 가운데, 다음 6권의 '제주도총서'를 남겼다.[3)]

제1집 : 제주도방언(서울신문사, 1947)
제2집 : 제주도의 생명조사서 - 제주도인구론(서울신문사, 1949)
제3집 : 제주도관계문헌집(서울신문사, 1949)
제4집 : 제주도수필(보진재, 1968)
제5집 : 제주도곤충상(보진재, 1970)
제6집 : 제주도자료집(보진재, 1971)

제1-3집은 그의 생전에, 그리고 제4-6집은 사후에 그의 동생이자 전통 복식 연구가 石宙善(1911-1996)에 의해 유고집으로 간행되었다.[4)] 제1집은 그가 채집한 제주방언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연구한 것, 제2집은 제주도 16개 마을의 인구 구성 및 분포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조사·서술한 것, 제3집은 기왕에 나온 제주도 관련 논저를 일정한 분류 체계에 의한 '종합목록' 체재로 정리한 것, 제4집은 자연(기상·해양·식물·동물 등)과 인문(방언·역사·인물·민속 등) 등에 걸친 제주도의 지역 정보를 이른바 '지리지' 형식으로 기술한 것, 제5집은 제주도의 곤충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관한 연구 논저 목록을 약간의 통계와 함께 제시한 것, 제6집은 신문·잡지·보고서 등에 게재하였거나 그럴 요량으로 미리 써 둔 원고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이러한 총서 면면에 반영된 석주명의 제주도 연구는, 기초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그 목록을 만들고 이로부터 통계적이거나 귀납적인 결론에 이르는 작업 과정에 기반을 두었다(사실, 그의 모든 연구가 다 그러하다). 그에 따라 그의 '제주도총서'에는 기초 자료의 목록 및 통계가 우선적으로, 아주 충실히 작성·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그는 언어의 문제에도 매우 큰 주의를 기울였다.[5)] 총서 중에 가장 먼저 간행된 ≪제주

3) 편의상, 책 제목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꿔 제시한다(석주명의 업적 내용을 직접 인용할 때에도 거의 동일). 다만 이 책들의 제목에 등장하는 '제주도'의 한자가 '濟州島'라는 점은 특기해 둘 필요가 있다.

4) 2008년에, 제주도의 서귀포문화원에서 이들을 새로 입력하고 모두 한데 모아 '서귀포문화원 연구총서'로 재간행하였다. 다만 총서 6권 중에 ≪제주도방언≫(제1집)만은 그 제목을 '濟州島方言集'(제1편의 소제목)으로 바꿔 출간하였다. 한편 총서의 입력 과정에서 대체로 원문의 한자는 노출하지 않고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괄호 속에 넣어 한글과 병용·표기하였다(총서의 <일러두기> 참조). 그리고 한글 표기는 현행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고치지 아니하고 대체로 원문을 그대로 따랐으나 '띄어쓰기'만은 현행 규정에 맞게 거의 모두 수정하였다.

도방언≫(제1집)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주도자료집≫(제6집)도 전체의 반 이상이 제주방언에 관한 기술이고 ≪제주도수필≫(제4집) 또한 제주방언에 기초하여 상당한 서술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석주명의 제주학에서 차지하는 제주방언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제주도방언≫(1947)은 그의 제주도 연구를 대표하는 저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석주명이 작업한 제주방언에 대한 조사·연구의 직접적 결과물이므로 그가 수행한 방언 조사·연구의 내용과 특징을 서술하고 그 연구 방법의 연원을 밝히려는 이 논문의 집중 검토 대상이 된다.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은 서울신문사 출판부를 발행처로 하여, 1947년 12월 30일에 간행되었다. 아래에다가 이 책의 체재 및 구성(면수 포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6)]

내표지
序(제3면)
目次(제5-6면)
第1篇 濟州島方言集(제7-94면)
第2篇 考察(제95-136면)
第3篇 隨筆(제137-188면)
간기

제1편의 <제주도방언집>은 석주명이 경성제대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소장으로 근무(1943.4-1945.5)하면서 채집한 방언형(7,012개)을 모아 간행한 것이다. 이에서는 제주방언형을 표제항으로 하여 이들을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그에 대한 '뜻풀이'(또는 '대응 표준어')[7)]를 나란히 제시하였다.

제2편의 <고찰>은 <제주도방언집>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석주명의 제주방언 연구다. 여기서는 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주방언과 다른 방언을 대조·연구하였다. 즉 전라·경상·함경·평안 방언 및 표준어와 제주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共通語"(=공통 어형)의 비율을 여러 각도로 분석·추출하고 이를 통해 방언간의 "相關度"(=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중세국어 및 외국어(몽골어,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와 관계있는 방언형을 따로 정리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3편의 <수필>은 주로, 제주도에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어나 생활 표현 등을 '지식백과'의 형식으로 짧게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는 제주도의 전통적 친족어, 민속어, 동식물 관련어, 의성의태어, 외래어 및 특징적인 문법 형태 그리고 속담, 민요, 무가, 지명, 어원에다가 언어 변화 및 이들에 대한 연구자 또는 수집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괄되어 있다. 이들을 항목 별로 각각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보태어 가나다순으로 배열·제시하였다.

---

5) 석주명이 나비 이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6) 이에 비해 서귀포문화원에서 펴낸 ≪濟州島方言集≫(2008)의 체재 및 구성(면수 포함)은 다음과 같다. 내표지/발간사(서귀포문화원 원장, 제3-4면)/인사의 말씀(석윤희, 제5-7면)/Greeting Address(석윤희, 제8면-10면)/序(제11면)/목차(제13-15면)/일러두기(제16면)/第1篇 濟州島方言集(제17-342면)/第2篇 考察(제343-482면)/第3篇 隨筆(제483-555면)/간기. 이 중에 서두의 '발간사, 인사의 말씀, Greeting Address'는 총서 6권 모두에 실려 있다. 여기서의 '인사의 말씀'은, 석주명의 외동딸인 '석윤희'(1935-현재)의 'Greeting Address'를 번역한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제주도총서'의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판독이 용이한 서귀포문화원의 '제주도총서'(2008)를 따르기로 한다(면수도 이에 준하여 표시). 하지만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 및 탈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인용에 앞서 원문과의 대조 작업을 항상 수행하였음을 여기 부언해 둔다.

7) '안쟈리쿨 Ligularia Taquetii Nakai, 우럭 笠子(魚), 쟈리 カジキリ' 등에서 보듯 이 뜻풀이가 언제나 한글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이나 <네이버 일본어사전>, <Yahoo Japan> 등을 참조할 때 'Ligularia Taquetii Nakai'는 '개취' 그리고 '笠子(かさご)'는 '쏨뱅이'('쏨뱅이'와 '우럭'은 둘 다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이고 'カジキリ'는 'スズメダイ(자리돔)'의 대마도 사투리다.

3. ≪제주도방언≫의 방언 채집 자료

이 책의 방언 자료는 제1편 <제주도방언집>에 모두 실렸는데 석주명은 그 '일러두기'에서 文世榮(1895-1952?)의 ≪조선어사전≫을 "텍스트"로 해서 해당 자료를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문세영의 사전 초판(1938) 또는 수정증보판(1940)의 표제항을 조사 항목으로 삼아 방언 채집을 했다는 말이다.[8)]

그렇다면 석주명은 제주방언을 조사하기 위해 ≪조선어사전≫의 어느 판본을 이용했을까? 또 그는 이 사전의 어떤 항목을 조사하고 어떤 항목을 조사에서 제외했을까? 아울러 그의 방언 채집 과정에서 문세영의 사전 표제항 이외에 어떠한 단어들이 조사 항목으로 추가되었을까? 나아가 그 조사 결과물로서의 <제주도방언집>은, 그것을 전후로 하여 발간된 다른 제주방언 관련 자료집과 비교해 어떠한 내용과 특징을 지니는 것일까?

사실상 모든 논점은, 석주명이 <제주도방언집>을 꾸미면서 어떤 자료를 참조하고 어떤 단어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는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결국, ≪제주도방언≫(1947)을 중심으로 석주명이 수행한 제주방언 조사·연구의 특징을 구명하는 작업이 된다.

3.1. 조사 항목

<제주도방언집>은 각 '방언형'에다가 '대응 표준어'를[9)] 달고 방언형의 가나다순으로 자료를 배열·제시한 자료집이다. 그러기에 이대로는, 조사 항목으로 어떠한 표준어 단어가 선택되었는지 총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순서를 '표준어-방언형'으로 바꾸고 이때의 표준어를 기준으로 해당 자료를 재배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0)]

그와 같은 작업의 결과는 이 방언집의 자료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수정증보판)을 사용해 조사한 것임을 쉬 알 수 있게 해 준다.[11)] '가마닛더기, 거베(발이 굵은 베), 거적더기, 고기잡잇배, 구수닭(얼룩점이 박힌 닭), 길맛가지' 등처럼 수정증보판 사전(1940)에 추가된 단어들이 <제주도방언집>에서 상당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작업은, 석주명이 제주방언을 조사할 때 ≪조선어사전≫의 많은 특정 항목을 제외했으며[12)] 추가 조사 항목을 정할 때 ≪조선식물향명집≫(1937)이나 '천자문' 등을 참조·활용

8) 이 사전은 덩치가 커서 조사를 위해 야외로 들고 나가려면 매우 불편했을 터이다. 따라서 석주명의 조사는 근무지(제주도시험장) 또는 숙소(시험장 관사) 근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자료집의 주제보자 '金南雲'이, 토평동 관사로 이사해 와 살면서 그와 함께 제주도시험장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는 점(26번 주석에 후술)은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해 주는 하나의 근거나 된다.

9) 이때의 대응 표준어는 대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 수록된 표제항이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이 사전의 표제항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다. <제주도방언집>에서 '가라치다, 갈때, 구녕' 등과 같은 형태를, 해당 방언형에 대한 대응 표준어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어사전≫(1940)에 각각 '가리치다(指), 갈대(蘆), 구멍(穴)' 등으로 실려 있어 <제주도방언집>의 "표준어"와 차이를 보인다('갈때/갈대'의 경우는 표기 방식의 차이).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반도 표준어 중에는 경성 출신 서정준(徐廷俊), 개성 출신 김기중(金器重) 양씨의 도움으로 기록한 것이 적지 않다."(21면)라 한 <제주도방언집> '일러두기'의 진술이 흥미롭다. 이는 서울말('徐廷俊'의 말)뿐 아니라 개성말('金器重'의 말)도 <제주도방언집>의 "標準語" 속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10) 이를 위해 해당 자료의 일부('ㄱ'으로 시작하는 방언형 및 'ㄱ'으로 시작하는 표준어형)를 입력한 뒤 '대응 표준어'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1) '나맛심(나 말입니까)'과 같은 표현이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석주명이 일상 대화 속에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도 항시 채집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12)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초판(1938)에는 10만 단어가 수록되었고 이에다가 1만여 단어를 추가하여 수정증보판(1940)을 만들었다(사전의 <일러두기> 참조). 이에 비해 <제주도방언집>의 항목은 7천 개 남짓이므로 90% 이상의 단어가 조사에서 제외된 셈이다.

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기도 한다. 우선, ≪조선어사전≫의 표제항 중에 석주명이 조사하지 않았을 법한 항목[13]을 일정 부류로 묶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가격(價格)'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자어[14]나 '게다(ゲダ=일본 나막신), 고무(ゴム=gum), 그람(gram)' 등 영어·일본어 계열의 외래어[15]
㉡ 거의 대부분의 식물명
㉢ '개구멍받이(대문 안에서 얻은 남이 갖다 버린 아이)[16], 그루갈이' 등 상당수의 고유어 합성어(compound)
㉣ '-가'(주격), '-기'(명사형 전성) 등 대부분의 조사나 어미류[17]
㉤ '가는 날이 장날' 등 상당수의 속담
㉥ 'ㄱ, ㄴ, ㄷ, ㄹ' 등의 자모 이름이나 '거무죽죽하다[18], 그래서' 등 조사가 어렵다고 간주되었을 항목

특히 <제주도방언집>에는 '거미(蛛)' 등처럼 형태상으로 표준어형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방언형은 실려 있지 않다. 이로써 보면 자료집을 엮는 과정에서, 방언 조사는 했으나 표준어와 형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방언형을 수록하지 않은 예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식물명'의 경우에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을 거의 참고하지 않은 듯하다.

> 내가 제주도의 식물명을 조사할 때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듣고 수집하였는데 … 아직 우리말은 표준명이라고 하드라도 보편화하지 않았고 참고문헌 관계도 있어 일명까지를 부(附)하였다.(≪제주도자료집≫ 40면)

표준화가 아직 덜 된 까닭에 ≪조선어사전≫의 식물 명칭을 따르지 않았고 참조를 위해 표준화된 일본어명까지 부기했다는 말이다. 이 자료집에 나오는 식물명(대응 "표준어")은 거의 대부분 ≪조선식물향명집≫(정태현 외)과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실은, 석주명이 식물을 조사할 때 문세영의 사전보다 ≪조선식물향명집≫(1937)에 크게 의지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
아울러 <제주도방언집>에, 180여 개 '한자'의 석과 음 그리고 190여 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19]

---

13) 물론, 조사에 실패했을 항목 또는 조사는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그 결과를 <자료집>에 싣지 않은 항목도 이에 포함된다.
14) '가격'이란 단어를 통해 볼 때, 석주명의 조사에서 ≪조선어사전≫의 한자어는 거의 대부분 배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가격' 등의 한자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었다면 이 자료집 속에, 표준어형과 다른 한자어 형태가 보고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단적인 예로 '가격'의 경우, 그것을 조사했더라면 <제주도방언집>에는 제주방언형 '까격'이 분명히 실렸을 터이다. 그러기에 극히 드물지만 해당 자료집에 실려 있는 '쪼껀(條件)'과 같은 일부 한자어는 일상 대화 속 관찰의 결과로 판단된다.
15) '나츠미깡(하귤), 독슬(소름), 이까리(닻), 하리비고장(할미꽃)' 등 "일본어와 관계있는"(≪제주도방언≫ 473면) 50개 단어가 <제주도방언집>에 실려 있으니 일본어계 외래어가 전혀 조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물론 이들 중 '독슬, 하리비고장' 등은 일본어와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16) 다만, '개구멍바지'에 대해서는 방언형('강알터주은바지')이 조사되었다.
17) '가그네=강(가서)', '가난(가니까)', '-쿠다(겠습니다)' 등 일부 특징적인 방언 어미는 <제주도방언집>에 수록되었다. 이때의 '가그네=강'과 '가난'은 어간 '가-(去)'에다가 어미 '-아그네=-앙'과 '-(으)난'이 결합된 활용형이다.
18) '노르스럼하다, 불그스럼하다' 등 '-으스럼하다'류의 방언형은 조사·보고되었다.
19) '공제(孔子), 맹제(孟子), 옥춘(=옥춘당, 사탕과자의 한 가지)' 등의 고유 명사도 몇 개 실려 있다.

한자 : 너블홍(洪) … 입게야/잇게야(也)
지명 : 가는꼿[20](구좌면 細花里) … 흑불근오름(조천면 土赤岳)

특히 '한자'는 대부분 '천자문'에서 가져와 조사한 것으로 여겨진다.[21] 그런데 첫 6자(天地玄黃宇宙)를 제외하고 7번째 자[洪]부터 마지막 자[也]까지 그 사이의 글자들이 간간이 조사·보고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아마도 1,000자를 모두 조사는 했으나 "표준어"와 차이를 드러내는 글자들만 자료집에 수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2. 조사 결과

<제주도방언집>(1947)은 한 지역의 언어 자료만을 모아 간행한 방언 자료집으로 한국 최초의 것이다. 이에는 1면당 2단 편집에 각 50여 행씩, 총 83면(서귀포문화원의 <제주도방언집>은 1단 편집에 1면당 24행씩, 총 321면)에 걸쳐 총 7,012개[22]의 매우 방대한 제주방언 자료가 실려 있다. 1개 방언을 대상으로 한, 이 정도 규모의 자료집은 <제주도방언집> 이전에 간행된 적이 없다.[23]

이 자료집에서는 "濟州語" 즉 제주방언형을 표제항으로 하여 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그에 대응하는 "標準語"(또는 '뜻풀이')를 나란히 제시하였다. 다만 방언형의 배열순서에서 경음의 처리 방식은 문세영의 ≪조선어사전≫과 마찬가지로 '가까갸꺄거꺼겨껴…'의 자모순을 따랐는바 그 결과, 오늘날의 표준 자모순과 순서상의 차이를 보이게 된 점도 여기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도방언집>에서 채집 자료를 한글로 적을 때에는, 방언형이든 표준어형이든 관계없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음소적 표기 원리'를 준용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방언≫(1947)은 두 개의 표기 체계를 갖춘 하나의 책이 되었다. 즉 자료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음소적 원리'에 의해 해당 자료의 표기가 이루어진 반면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형태음소적 원리'에 기초한 당시의 맞춤법을 준수하면서 서술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24]

이에 따라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은 그 기본 골격을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40)에 크게 의지하였으면서도 표기법에서만은 해당 사전의 '형태음소적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자료집(전체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에 의해 표기된 자료집)이 되었다.[25] 그러한 까닭에 모든 자음이 받침으로 등장하는 ≪조선어사전≫과 달리, <제주도방언집>('일러두기' 제외)에는 7종성('ㄱ, ㄴ, ㄹ, ㅁ, ㅂ, ㅅ, ㅇ') 및 'ㄺ, ㄻ' 종성만 받침 표기로 출현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방언≫ 속 진술 및 주변 정황으로부터 석주명이 수집한 결과물 즉 제주방언 자료

20) 이 자료집에서 경음 부호로는 합용병서('ㅺ, ㅉ, ㅼ, ㅆ')가 사용되었으나 편의상 이 논문에서는 이들을 인용할 때 각자병서('ㄲ, ㄸ, ㅃ, ㅆ') 즉 쌍자음 표기로 고쳐 제시하기로 한다.
21) 그리 많진 않지만 '흔일[一], 점엇신갓머리[宀], 씨집씨[媤]' 등처럼 "천자문에 나오지 않는 한자"(이권홍 2011: 343)도 20자 정도 포함되어 있다.
22) 이 책의 제2편 <고찰>의 서두에, 방언형의 총 개수와 초성별 개수가 밝혀져 있다.
23) 이보다 이른 시기에 간행된 小倉進平(1944)의 조사 항목은 860여 개(어미와 조사 제외)이고 박용후(1960)에 이르러서야 9,500여 개 항목(조사나 어미 포함)에 다다르게 되었으니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은 훗날 간행된 제주방언 자료집들의 원천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4) 이는 제3편 <수필>의 표제항 '갚다'와 이 항목에 대한 설명(제주어론 '가프다'라고 하고 원한을 '갚다'란 때는 '척ᄒᆞ다'라고 하니 '척지다'에서 변한 양 싶다.)을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25) 이처럼 석주명이 ≪제주도방언≫의 제1편과 제2·3편의 표기 체계를 달리한 것은, 그가 '형태음소적 원리'에 따라 방언형을 전사하는 방식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듯하다. '형태음소적 표기'는 '기저형'의 설정을 전제하는바 제주방언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제주방언의 기저형을 모두 정확히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와 동일한 이유로 요즈음에도, 익숙지 않은 방언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거나 자료집을 간행하는 경우에는 '음소적 원리'를 준용해 방언형을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 언어적 성격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일도 가능하다. 우선, <제주도방언집> 서두의 '일러두기'에, 석주명 자신이 채집한 제주방언형의 출처를 밝혀 놓은 점이 참조된다.

1. 여기 수집한 말은 필자의 제주도 생활 2개년 간에 도내(島內) 각처에서 수집된 것이나 주로는 애월면 출신 장주현(張周鉉), 서귀면 호근리 출신 김남운(金南雲) 양군의 조력으로 문세영(文世榮) 씨의 조선어사전을 '텍스트'로 하야 모흔 것이다.
2. 그러나 필자의 생활한 장소가 서귀면 토평리이니 남부어가 비교적으로 많을 것이다.

그의 제주 체류 기간(2년 1개월) 동안,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을 기초로 하여 "島內" 각처에서 방언형을 수집하였으되 주로 張周鉉(제주시 애월읍 출신)과 金南雲(서귀포시 호근동 출신) 두 사람에게서 방언 자료를 모았다는 말이다. 아울러 자신의 거주지(서귀포시 토평동) 근처에서 방언을 자주 채집한 까닭에 "남부어"가 북부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부연해 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두 제보자의 신상 정보는 이 정도로 매우 소략히 진술되었는바 <제주도방언집>에 수록된 언어재의 성격(특히 방언사용의 세대나 계층)이 어떠한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남운(1920-1998)[26]의 생년 및 해당 자료집에 나타나는 "兩君"이란 표현으로부터 이들이 석주명(1908년생)보다 나이가 적거나 비슷한 연배의 인물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정승철 2010b: 217). 만일 두 제보자의 연령이 모두 그러하다면 이 자료는 20세기 초에 태어난 제보자의 언어재를 모아 놓은 제주방언 자료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주명의 <제주도방언집>(1947)을, 그 전후로 간행된 다른 방언 자료집들 특히 小倉進平(1944), 박용후(1960), 현평효(1962) 등과 비교하여 살필 때 다음 두어 가지 사항은 사소하지만, 제주방언 화자의 직관과 관련해 약간 논란의 소지를 제공한다.

첫째, <제주도방언집>에서 제법 많은 항목에 대해 '북부어'와 '남부어'의 구별 표지를 두었는데 그것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 이를 좀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먼저 그러한 항목(특히 'ㄱ'으로 시작하는 표제항) 중에, 네 자료집에 공히 출현하는 단어만을 모아 표로 정리해 보인다.

	석주명(1947)	小倉進平(1944)[27]	박용후(1960)[28]	현평효(1962)[29]
가루	가를(북부어) ᄀᆞ루(남부어)	ᄀᆞ루(전역)	ᄀᆞ로, ᄀᆞ루	ᄀᆞ를(전역) ᄀᆞ르, ᄀᆞ로(남부)
감자	지실(북부어) 지슬(남부어)	지실(전역)	지슬, 지실	지실(전역) 지슬(전역)
거머리	거말(북부어) 거머리(남부어)	거멀장(제주) 거멀(대정, 성산, 서귀)	거말	거말, 거머리, 거마리(북부) 거멀(남부)
거지	동녕밧치(북부어) 걸바시(남부어)	동녕받치(전역)	동녕바치 걸바시, 걸렁바쉬	동녕바치(전역) 걸바시(전역)

26) 김남운은 제주도시험장에서 석주명의 "지도"를 받는 '木香의 재배 시험'(1943) 담당자였다(≪제주도자료집≫ 249면). 그의 신상과 관련하여 <꿈꾸는 섬>(윤봉택의 블로그) 속의 글('김광협')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해당 글 속에서, 김광협(1941-1993) 시인은 "서귀포시 호근동 … 아버지 김남운 … 본은 광산"이며 "아버지가 당시 경성대학 부속 생약연구소에 취직하게 되자 아버지 따라 가족들이 토평동 관사로 이사 … 4살 때 석주명 박사가 나비 잡는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단서로 광산 김씨 족보에서 '김남운'의 생몰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거품	북굴래기(북부어) 거꿈, 게꿈(남부어)	개끔(전역)	부끌래기 거꿈, 게꿈	부끌레기(북부) 부글레기, 벌굴레기, 버굴레기(남부) 게꿈(전역)
게	깅이(북부어) 겡이(남부어)	깅이(제주, 대정) 겡이(성산, 서귀)	깅이, 겡이	깅이, 기, 겅이(북부) 겡이(남부)

그런데 위 표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석주명의 '북부어/남부어' 구분이 타당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게'를 제외하면[30] <제주도방언집>의 '북부어' 또는 '남부어'가 다른 자료집에서는 대부분 상이한 지역 분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품'의 경우에는 그가 상정한 '북부어/남부어'의 일부 항목이 '지역차'가 아니라 '의미차'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단적으로 <제주도방언집>의 '북굴래기(북부어)'와 '게꿈(남부어)'이 현평효(1962)에는 '부끌레기(거품)'[31]와 '게꿈(입으로 내뿜는 속이 빈 침방울 따위)'으로, 뜻이 다른 단어로 풀이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박용후(1988: 6)의 다음 진술은 석주명의 '북부어/남부어' 구분을 아예 직접 겨냥한 듯 보인다. 제주방언 화자[32]로서의 직관에 기반할 때 '남부어'와 '북부어'의 차이는 몇 단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말이다.[33]

> 제주방언을 남북으로 구분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른 말은 몇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자료 조사 방법 및 과정>)

이러한 사실 및 진술을 감안하면 석주명의 '북부어/남부어' 구분은 표본의 크기(거의 2명)가 작은 데서 비롯한 '지나치게' 일반화된 주장으로 여겨진다. 그러기에 그의 자료집에 나타난 구별 표지 '북부어/남부어'는, 당시 제주방언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조사자가 '비토박이'인 데에 기인하여 <제주도방언집>에서는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 직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들이 종종 발견된다.

---

27) 小倉進平(1944)의 조사 지점은 '제주(북부), 서귀(남부), 성산(동부), 대정(서부)'의 4곳이다.

28) 이 책은 훗날, 한자 제목의 '자료편'(1988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과 '고찰편'(1989년, 과학사) 두 권으로 나뉘어 재간행되었다. 조사 지점과 관련해서는 박용후(1988: 5)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말을 정리 … 비일상적인 부분은 거의 제외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로 동식물, 기구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런 것은 …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다고 하였다.(<자료 조사 방법 및 과정>) 자신의 일상어를 기반으로 하여 자료집을 만들었으며, '동식물명, 기구명' 등의 비일상어에 한해 여러 지역에서 채집한 결과물을 자료집에 수록했다는 말이다(조사 지역은 밝히지 않음).

29) 현평효(1962)의 조사 지점은 33곳이다(정승철 2010b: 216-9). 여기서는 <제주도방언집>과의 비교를 위해 해당 조사 지점을 '북부'와 '남부' 두 영역으로 거칠게 재분류하였다.

30) 심지어 '게'의 경우에도 '깅이(북부어)'와 '겡이(남부어)'의 지역 구분이 확고한 것은 아니다. ≪한국방언자료집≫(제주도 편)에는 '깅이'와 '겡이'가 '북제주'와 '남제주' 모두에서 쓰이는 형태로 보고되어 있다(물론 남제주에서 '겡이'는 '깅이'보다 빈도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31) 제주방언에서 비어두음절의 '에'와 '애'는 변별되지 않는다(정승철 1995: 28). 따라서 석주명(1947)의 '북굴래기'와 현평효(1962)의 '부끌레기'는 거의 동일한 발음이라 할 수 있다('부끌레기>부꿀레기'는 원순모음화).

32) 박용후(1909-1993)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출신의 교육자이자 향토사학자다. 이른바 제주도 '남부'(더 정확히는 '서부') 출신의 방언 연구자인 셈이다.

33) 정승철(2013: 190)의 다음 진술도 참조된다. 전통적으로 제주방언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과 '산남'으로 이분하여 왔다. 하지만 이 두 방언이 보여 주는 언어적 차이는, 다른 방언권과 비교할 때 "하나의 소방언권을 하위 구획한 방언, 즉 핵방언권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석주명(1947)	小倉進平(1944)	박용후(1960)	현평효(1962)
가을	ᄀᆞ을	ᄀᆞ실, 가실, ᄀᆞ울	ᄀᆞ슬, ᄀᆞ을	ᄀᆞ슬, ᄀᆞ을
겨울	저울	저실	저슬, 저을	저슬, 저을, 겨을
기와집	지에집	지새집, 지애집, 재집	지새집, 지에집	지세집, 지에집
가루	가를, ᄀᆞ루	ᄀᆞ루	ᄀᆞ로, ᄀᆞ루	ᄀᆞ를, ᄀᆞ르, ᄀᆞ로
견디다	전디다	전듸다	전디다, 준디다	전디다, 준디다
꼬리	총지=꼴랑지=꼴랭이=꼴리	꼴랑지, 꼴렝이	총지, 꼴랑지, 꼴랭이, 꼴리	총지, 꼴리
계집애	비바리[34]	비바리, 지집빠이	비바리, 지집아	비바리, 지집아의
길[長]	지레=질	질	질	질, 길

우선 ‘가을, 겨울, 기와집’의 경우, 이들은 제주방언에서 전통형의 변이(‘ᄀᆞ슬~ᄀᆞ을, 저슬~저을, 지세집~지에집’)를 보이는 대표적인 형태다. 이는 해당 단어들이 모두, 이전 시기에 ‘ㅅ~ㅿ’의 공존을 유지하던 형태였다는 사실과 관련된다(정승철 1995: 155).[35] 중세 시기 제주방언의 ‘ㅿ’은 대체로 탈락(‘ㅿ>∅’)을 경험하였는바 그로 인해 ‘ㅅ’로의 대응형(‘ᄀᆞ슬, 저슬, 지세집’)과 ‘ㅿ’의 탈락형(‘ᄀᆞ을, 저을, 지에집’)이 현대 제주방언에서 쌍형어를 이루게 된 것이다(정승철 1995: 154-161). 그럼에도 <제주도방언집>에서는 이들에 대해 그러한 ‘ㅅ’형(즉 ‘ᄀᆞ슬, 저슬, 지세집’)을 보고하고 있지 않다.

또 ‘가루, 견디다, 꼬리’의 경우에는 ‘ᄋᆞ’에 관한 인식에서 제주방언의 전통적 실상과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박용후(1960)나 현평효(1962)에 제시된 대로, 노인층 제주방언 화자라면 누구나 ‘ᄀᆞ를’과 ‘준디다(~전디다)’가 어두음절의 ‘ᄋᆞ’를 가진 형태라는 사실 그리고 ‘총지’라는 단어의 어두음절 모음은 ‘ᄋᆞ’가 아니라 ‘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36]

마지막으로, ‘계집애’와 ‘길’에처럼 단어들 사이의 의미차가 무시되어 있기도 하다. 현평효(1962)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바리(조금 성숙하나 아직 미혼인 여자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37]와 ‘지집아의(계집아이)’[38] 그리고 ‘길(길이의 한 단위)’과 ‘지레(키=신장)’는 의미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방언집>에, 방언 직관에 어긋나는 예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지닌 자료의 방대함에 비하면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들은 매우 사소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34) 제3편(<수필>)에는 ‘비바리’가 “계집애, 처녀” 등을 뜻한다(518면)고 되어 있다.
35) 16세기 중엽까지 중세국어 문헌어(≒중부방언)에 존재했던 ‘ㅿ’은 대부분, 현대 제주방언에서 ‘ㅅ’로 대응되어 나타난다(정승철 1995: 150).
36) 물론 석주명이 당시에, 새로운 변이형을 실제로 듣고 이를 그대로 채록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37) 이에 대해 小倉進平(1944)에는 ‘大きな娘(어리지 않은 여자)’, 박용후(1960)에는 ‘처녀’라는 보충 설명이 붙어 있다.
38) 이 단어는 ‘지집+아이→지집바이’의 복사 현상(정승철 2013: 167-8)을 겪어 ‘지집빠이’로 실현된다. 小倉進平(1944)의 ‘지집빠이’는 바로 이를 포착한 것이다.

4. 석주명의 제주방언 연구

앞서 살핀 ≪제주도방언≫의 제1편(<제주도방언집>)이 '자료편'이라면 그 제2편(<고찰>)과 제3편(<수필>)은 이른바 '연구편'이다. 방언 연구로 한정할 때, 제2편에서는 <제주도방언집>에 수록된 단어들 중에 전라·경상·함경·평안 방언과 공통되는 요소의 비율을 산출·비교하여 방언 상호간의 "類緣關係"(석주명 1992: 81)를 측정하였고 제3편에서는 제주방언을 구성하는 독특한 언어요소들에 대한 공시·통시적 관찰을 통해 제주방언이 지닌 언어적 특징을 규명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석주명의 제주방언 연구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專門"으로 하는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석주명 1992: 80)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4.1 방언들 사이의 언어적 거리에 대한 관심

'언어적 거리'란 방언구획을 위한 도구로, 인접하는 두 지점 사이의 방언차를 가리키는 말이다(정승철 2013: 151). 일반적으로 '언어적 거리에 의한 방언구획'에서는, 두 지점 간에 차이나는 단어의 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언어적 거리를 측정하고 해당 값을 기준으로 방언구획을 한다. 이는 언어들 사이의 친족 관계를 판단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는 언어 측정(또는 방언 측정)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석주명은 ≪제주도방언≫ 제2편(<고찰>)에서 바로, 이 '언어적 거리'에 주목하였다.[39] 한국어 방언들 사이에 나타나는 '언어적 거리'(여기서는 '공통 어형'의 개수)를 측정하여 방언 간의 가깝고 먼 관계(곧 "상관도")를 따져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제주도방언집>에 실린 어휘를 바탕으로 전라도·경상도·함경도·평안도 각 방언[40]과 제주방언 사이 그리고 이들 "반도방언" 2개 또는 "3개씩을 조합"한 方言群 사이의 "공통어수"를 산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제5장 제주도방언과 반도 대표의 4방언> 및 <제13장 제주도방언과 타 4방언의 상관도> 참조)에 도달했다.[41]

① 제주방언은 전라·경상방언과 가장 가깝고 (함경방언은 그 중간이며) 평안방언과 가장 멀다.(434면)

---

39) 일반적으로 방언학계에서는 프랑스 언어학자 Séguy의 논문 "La dialectometrie dans l'Atlas linguistique de Gascogne"(Revue de Linguistique Romane 37, 1973)을 언어적 거리에 의한 방언구획론의 효시로 본다. 이로써 보면 석주명은, 이른바 '언어적 거리'에 의한 언어 측정법을 누구보다도 먼저 활용한 연구자가 되는 셈이다.

40) 제2편(<고찰>)의 중간 중간에, 전라방언은 전남 광주 출신의 "장형두(張亨斗) 씨", 경상방언은 대구 출신의 "백갑용(白甲鏞) 씨 부처", 함경방언은 함북 朱乙 출신의 "윤경열(尹京烈) 씨 부처", 평안방언은 평양 출신의 "필자와 우처(愚妻) 及 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져 있다. 석주명은 이들에게 <제주도방언집>의 단어를 하나하나 물어 해당 방언 자료를 모은 것으로 판단된다.

41) 석주명은 이들 방언을 대조하면서 "제주도방언, 전라도방언, 경상도방언, 함경도방언, 평안도방언"이란 용어와 "제주(도)어, 전라도어, 경상도어, 함경도어, 평안도어"란 용어를 섞어 썼다. <제주도방언집>('일러두기')의 진술("제주도어는 1방언으로 볼 수 있으나 濟州, 旌義, 大靜의 3지방어로 다시 논흘 수도 있고") 및 <고찰>('후기')의 진술("旌義를 중심으로 한 동부어, 大靜을 중심으로 한 서부어도 수집하야겠고 적어도 대정어만은 추가하야 된다.")을 마저 참조하면 석주명의 '방언'은 '지방어'의 상위어 그리고 '○○어'는 '○○방언' 또는 '○○지방어'와 동위어로 사용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할 때 석주명의 '제주어'는 '제주 지역어'('○○도어'는 '○○도 지역어') 정도의 뜻으로 쓰인 용어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방언학에서는 방언권(=언어 특징을 공유하는 개별 방언들의 묶음)의 설정을 전후로 하여 '지역어'와 '방언' 두 용어를 구별해 쓴다. 방언권이 확정되기 전에, 어떤 지역에서 쓰이는 말을 "잠정적으로" 가리켜 이를 때 '지역어'라 부른다는 것이다(정승철 2013: 13).

② “반도방언”들 사이에는 전라·경상방언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은 경상·함경방언 그리고 전라·함경방언의 순이다. 평안방언은 이들과 가장 관계가 적으나 함경방언과는 “다소” 관계가 있다.(434면)
③ 제주방언과 전라·경상방언 중에 “전동”한 형태가 “불과 5%”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제주방언의 특이성은 현저하다.(413면)

형태가 “전동”(413면)한 단어와 “근원”(434면)이 동일한 단어를 합쳐 “공통어”라 하고[42] 그것의 개수를 산출한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제주방언과 “반도방언” 사이에 드러나는 관련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기술한 결론을 도출해 냈던 것이다(<고찰>편의 제17장 ‘외국어에서 유래한 제주도방언’에서는 “몽고어,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와의 대조를 통해 외국어의 “영향” 관계를 살피기도 하였다). 물론 이에서 사용한 방법은 이미, 곤충학에서 오랜 동안 소용되어 온 것이었다. 이로써 석주명의 <국학과 생물학>(1948)에 나오는 다음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 곤충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지방 곤충상 상호간의 유연관계(Affinities)를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처럼 其 어휘 중에서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및 평안도의 제 방언과 공통되는 것들을 뽑아서 其 백분비를 산출해 볼 뿐만 아니라 제 방언 상호간의 유연관계를 음미하여 보았다. … 이 연구 방법은 별로 독창적의 것은 아니고 곤충학에서는 흔히 쓰이는 것이나 방언 연구에 응용한 데에 의의가 있었고 필자가 감히 전문 외의 학문에 손대게 해 준 것이었다.(석주명 1992: 81)

4.2 언어 변이에 대한 인식

언어 변이(linguistic variation)란 일정한 사회 집단의 말 또는 동일한 화자의 말에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 공시적으로 교체되어 쓰이고 있는 언어 상태를 가리킨다(정승철 2013: 247). 어떤 사회에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둘 이상 존재할 때 그것을 언어 변이라 부른다는 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석주명이 <수필>편에서 따로 언급한 ‘ㄸ’와 ‘ㅌ’는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음운 변이의 예가 된다.

> ‘ㄸ’와 ‘ㅌ’(496면) : 양음(兩音)이 혼동 … 타다/따다(열매를), 뜰림없이/틀림없이[43]

이와 같은 언어 변이의 출현은 대개, 해당 사회의 ‘세대, 성별, 계층’ 등 특정한 조건과 관련되게 마련이다. 석주명의 ≪제주도방언≫ 속에는 그러한 언어 변이에 대한 기술이 이따금씩 등장한다.

> 야로꼬떼(528-9면) : 서귀면 법환리에서만 들은 말인데 아이들의 말로 ‘야 우섭다’의 뜻
> 수애=수외(208면) : 순대. 여자나 아해의 말이고 남자의 말은 ‘피창’
> 좀팍(203면) : 곡물 용기로 사용하는 목제 바가지. 주로 大靜 지방서 사용하는 말이고 도회지서는 ‘손빡’이라고 칭함.

42) 석주명은 표준어를 사정할 때 이 공통어의 “분포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기에 <고찰>편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제지(諸地)의 방언”에 공히 나타나는 단어라면 표준어로 “편입”되어야 한다(414면)고 주장했던 것이다.
43)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을 사용해 예를 제시하였다. 이때 ‘/’의 앞쪽이 “제주어”고, 뒤쪽이 “표준어”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방언에서 '야로꼬떼'는 아이들의 말, '수애, 수외'는 여자나 아이들이 그리고 '피창'은 남자 어른이 쓰는 말, '좀팍'에 대해 '손빡'은 "도회지"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이로써 보면 석주명은 세대나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등 언어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관찰하는 일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셈이다. 해당 진술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그의 조사·보고에 언급된 이 같은 언어 변이들은 오늘날, 현대 사회언어학 분야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이에서 더 나아가 석주명은 <수필>편에서 제주방언의 일부 어휘 체계에 대한 기술을 종종 시도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접두어 '큰'은 가히 여기서 언급할 만하다.

큰(550면) : '큰, 맏'의 뜻. 순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큰 ┌ ① 큰 ┌ ① 큰 ┌ ① 큰
└ ② 조근 ├ ② 셋 ├ ② 셋 ├ ② 셋
└ ③ 조근 ├ ③ 말젯 ├ ③ 큰말젯
└ ④ 조근 ├ ④ 조근말젯
└ ⑤ 조근

제주방언은 '伯叔' 또는 '자녀' 항렬의 순위를 나타내는 친족어 체계에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정승철 2013: 50-2) 위의 예에서처럼 석주명은, 동항렬 구성원 수에 따른 명칭의 분화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 변이 및 어휘 체계에 대한 그의 세심한 보고는,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 체득한 생물학적 사고에서 비롯했음에 틀림없다. 제주방언의 언어 변이와 어휘 체계에 대한 그의 관찰이, 나비의 생물학적 조직의 특정 "형질" 요소를 대상으로 "개체 변이의 범위를 밝혀 동종이명을 제거"(문만용 2012: 111)하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던 석주명의 나비학에서 연유한 자연스러운 응용의 결과물이었으리라는 말이다.

4.3 어형의 분화 과정에 대한 이해

석주명의 ≪제주도방언≫ 제3편(<수필>)을 훑어보면 '언어 변화'에 대한 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기둥(柱)의 고어"(492면)나 "가슴(胸)의 어원"(485면) 등과 같은 항목에서 보듯 어떤 단어의 '고어' 또는 '어원'에 대한 자료 고증 및 그것으로부터 현대 방언형에 이르는 변화 과정에 대한 추론이 곳곳에 베풀어져 있다. 종종, 해당 어형의 분화 과정을 "도해(圖解)"로 풀어 보이기도 하였다.

가숨(고어) ┌→ 가심(제주, 전라, 경상, 함경)
└→ 가슴(현대 표준어)

이 "도해"는 제2음절에서 각기 달리 일어난 'ᄋᆞ>이'의 변화와 'ᄋᆞ>으'의 변화로 인해 제주·전라·경상·함경 방언('가심')과 표준어('가슴')의 방언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려 준다.[44] 이

44) 사실, '가심'과 관련된 'ᄋᆞ>이'의 변화는 한국어의 역사를 고려할 때 단계적 변화로 이해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즉 비어두음절의 'ᄋᆞ>으' 변화('가숨>가슴')를 겪은 형태가 'ㅅ' 뒤에서의 '으>이' 변화('가슴>가심')를 경험했다고 봐야 한다는 말이다[이기문(1998)에 따르면 전자의 변화는 "16세기", 후자의 변화는 "19세기"에 일어났다]. 이를 연쇄 변화로 규정하면 '가슴'과 '가심'은 결과적으로 "異種"의 어형이 아니라 "同種"의 어형이 된

에서 더 나아가 그는, 어형 분화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단계적 변화를 상정하기도 하였다. “바람의 어원”(512면)을 보자.

ᄇᆞᄅᆞᆷ(古語) ┌→ ᄇᆞᄅᆞᆷ(濟州語) → ᄇᆞᄅᆞᆷ(濟州語)
└→ 바ᄅᆞᆷ(中古語) → 바람(현대 표준어)

‘ᄇᆞᄅᆞᆷ’이 제1단계 변화를 겪어 ‘ᄇᆞᄅᆞᆷ’(제주방언)과 ‘바ᄅᆞᆷ’(경기도방언)으로 분화되고 이들이 각각 상이한 제2단계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제주방언(‘ᄇᆞᄅᆞᆷ>ᄇᆞᄅᆞᆷ’)과 표준어(‘바ᄅᆞᆷ>바람’) 사이에 상당한 방언차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가 보기에, 이때의 제2단계 변화는 어형의 방언 분화를 초래하지는 않는 연속된 변이(또는 변화)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석주명이 상정한 변화들은 어형의 동종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제1단계 변화에 의해서는 異種의 어형이 산출되고 제2단계 및 그 이상의 변화에 의해서는 同種의 어형[45]이 유지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의 중심에는 제2단계 및 그 이상의 변화들을 연속된 변이로 간주하는 그의 생물학적 경험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나비’의 동종 여부 판단 작업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그대로 방언 연구에 재현해 놓은 느낌이다.

석주명은 무수히 많은 나비에 대한 채집·관찰을 통해 한국산 나비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였다. 당시는 나비 연구가 무르익지 않은 시기, 그러하기에 그는 단순히 각종 나비를 잡아서 표본화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정리하는 “원시적 방법”(석주명 1992: 6)을 사용해 나비들 사이의 同種 및 異種 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나비들의 동종 여부 판단에는 “변이의 연속성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었다(문만용 1997: 20). 즉 각종 나비가 가지는 형태상의 특질과 관련된 요소는 개체마다 차이를 보이게 마련인데[46] 그러한 형질상의 차이가 연속적인 변이(또는 변화)에 속하는지, 아닌지 하는 판단[47]을 통해 어떤 두 개체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판별해 냈다는 말이다. 이로써 방언 연구에 곤충학의 방법을 “응용”했다는 석주명의 진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5. 한국 방언학사와 석주명

참고문헌

강영봉(2012),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 의의와 과제,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윤용택 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79-200.

김치완(2012), 석주명의 제주도 자료에 비친 제주문화,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윤용택 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17-255.

문만용(1996),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석사논문(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문만용(2012),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윤용택 외), 제주대

다.(‘이종’ 및 ‘동종’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

45) 석주명은 이를 “공통어”(=공통 어형)로 보았다. 앞서 서술했듯 그는, 그러한 “공통어”의 수를 세서 방언들 간의 ‘언어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46) 이에 대해 석주명은 <동물의 종류 이야기>(1939)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 개체 변이는 어느 동물에나 있는 사실인 고로 이 세상에는 한 마리도 똑같은 경우는 없읍니다.(석주명 1992: 37)

47) 이에는 해당 변이가 “정규분포곡선” 상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된다(문만용 1997: 21).

탐라문화연구소, 99-136.
문세영(1940), ≪조선어사전≫(수정증보), 영창서관.
문태영(2007), 변이에 대한 석주명의 인식과 실험, ≪석주명선생 탄생100주년 기념: 나비, 그리고 아름다운 비행≫(2008), 석주명선생기념사업회, 76-80.
박만규(1949), ≪우리나라식물명감≫, 조선교학도서.
박용규(2011), 『조선어사전』 저자 문세영 연구, ≪사총≫ 73, 고려대 역사연구소, 77-102.
박용후(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박용후(1988), ≪濟州方言硏究≫(資料篇),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 서울신문사.
석주명(1968/2008), ≪제주도수필≫, 서귀포문화원.
석주명(1971/2008), ≪제주도자료집≫, 서귀포문화원.
석주명(1992), ≪석주명의 나비채집 이십년의 회고록≫, 신양사.
윤봉택(2011), 석주명의 서적 출판에 관한 연구 – 제주도 관련 출판물을 중심으로, ≪석주명 선생 탄생 103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85-195.
윤용택(2012),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윤용택 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89-330.
윤용택 외(2012),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이권홍(2011), 방언자료를 통한 한자훈 연구, ≪한자한문교육≫ 27, 335-367.
이기문(1998), ≪국어사개설≫(신정판), 태학사.
이병철(1989), ≪나비박사 석주명 평전 :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아카데미서적.
이우철(2005), ≪한국 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정승철(2001), 한국 방언학사, ≪방언학 사전≫(방언연구회 편), 태학사, 384-391.
정승철(2010a), 小倉進平의 생애와 학문, ≪방언학≫ 11, 155-184.
정승철(2010b), <제주도 언어 자료> 해제, ≪한국어연구≫ 7, 211-224.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정승철(2014), 한국 방언자료집 편찬의 역사, ≪방언학≫ 20, 7-35.
정승철(2018), ≪방언의 발견≫, 창비.
정승철(2018), 석주명의 생애와 학문, ≪애산학보≫ 45.(근간)
정태현(1943), ≪조선삼림식물도설≫, 조선박물연구회.
정태현·도봉섭·이덕봉·이휘재(1937), ≪조선식물향명집≫, 조선박물연구회.
조선총독부 편(1920), ≪조선어사전≫, 조선총독부.
최낙진(2012), 석주명의 '제주도총서'의 출판학적 의의,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윤용택 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63-2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 정연사.[수정판: 태학사, 1985]
현평효·김종철·김영돈·강영봉·고광민·오창명 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硏究≫, 東京: 岩波書店.
中井猛之進(1931), ≪東亞植物區景≫, 東京: 岩波書店.
中井猛之進(1933), ≪東亞植物≫(東亞全書 52), 東京: 岩波書店.[제4판: 1935]
中井猛之進(1935), ≪東亞植物圖說≫, 東京: 春陽堂.

Nerbonne, J. & W. Kretzschmar, Jr(2006), Progress in Dialectometry,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21-4, Oxford University Press, 387-397.